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사진 해양환경관리공단(서근석, 내사랑갯벌)

바다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 | | |
|--------|----------------------------|----|
| PART 1 | 소장품 이야기 용신도 | 04 |
| PART 2 | 테마 전시 바다를 만난 이야기 | 06 |
| PART 3 | 박물관 사람들 | 08 |
| PART 4 | 박물관 교육행사 | 09 |
| PART 5 | 박물관 소식 | 10 |
| PART 6 | 관람 후기 | 11 |

바다

이성복

눈앞을 가린 소나무 숲가에서
서러움이 숨고
한순간 더 참고 나아가다
불현듯 나는 보았습니다

서러움이 내게 말 걸었지요
나는 아무 대답도 안했어요

서러움이 날 따라왔어요
나는 달아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먼 길을 갔어요

질푸른 물굽이를 등지고
흰 물거품 입에 물고
서러움이 서러움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엎어지고 무너지면서도 내게 손 흔들었습니다.

이성복 (시인, 1952년 6월 4일 경북 상주 출생)

서울대 불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계명대 교수로 재직중.
1977년 『문학과지성』에 '정든 유곽에서'로 등단.
1982년 김수영문학상을 수상.
1980년 『똥구는 돌은 언제 잡개는가』
1987년 『남해금산』
1990년 『그 여름의 끝』
1993년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등의 시집이 있다.



조선시대, 103.8×121.0cm

소장품 이야기

용신도 < 龍神圖 >

용신은 물을 관장하는 수신水神으로서 불교와 도교에 재래의 수신신앙이 연결되어져서 형성된 신이다. 사해 바다를 관장하는 신으로 기우, 풍어, 풍년, 무사항해 등을 주관하는 신이다. 용신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남신은 주로 해일과 바람을 관장하고 여신은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삼국시대 때에는 주로 호법신과 호국신으로 믿어지다 이후 풍년, 풍어, 기우, 풍파 조절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무속신앙에서 제사를 모시는 대상으로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불교를 배경으로 호국신으로서 신라 30대 문무왕이 호국대룡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동해 바다 바위 위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으며, 민간신앙으로서는 같은 『삼국유사』 「보양이목」 조에 보양스님을 따라 신라에 온 용자가 날이 가물자 천신의 허락 없이 비를 내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바다와 관련하여 용신은 풍어와 풍파를 조절하는 신적인 기능과 용신이 거주하는 용궁에는 진기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여러 설화가 구전되었으며 특히 집안의 우물이 용궁과 통해 있다는 믿음과 함께 용신이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더욱 구체화 되어 현재에 들어와서는 용왕님, 용자신, 용관신, 용궁대감, 용궁대신, 용궁부인, 용궁천왕, 용궁불사, 사해용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숭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동해안 별신굿에서 용신은 동해를 관장하는 '광덕용왕', 남해를 관장하는 '광리용왕', 서해를 관장하는 '광택용왕' 북해를 관장하는 '광연용왕' 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주도 무훈굿과 포항 용왕굿거리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잘 인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용신이 숭배되기도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용신도는 화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용신이 바람을 관장하는 청룡을 타고서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 용왕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용신은 양손을 가슴에 모아 홀을 들고 앉아서 눈을 무섭게 부라리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용신 뒤쪽에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 동자승이 부채를 들어 머리를 가리고 있다. 오른쪽 모서리에 그려진 용왕은 거친 파도를 뚫고 나온 황룡을 타고 용신을 맞이하고 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가지런히 하고 얼굴은 약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돌려서 용신을 마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거친 파도가 역동적으로 중첩되어 물결을 만들고 있으며 하늘은 검푸른 빛을 띄어 금새 비가 내릴 듯한 배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검푸른 빛의 하늘과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두 신령스러운 존재 뒤편으로는 구름과 밝은 분홍색 영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을 영지모양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진 민화에 가까운 용신그림으로 용신의 신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관 차인철

테마전시 바다를 만난 이야기

일시 2014년 5월 13일 ~ 2014년 8월 24일
장소 국립해양박물관 4층 테마전시실

“He always thought of the sea as La Mar...”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늙은 어부 산티아고는 바다를 사랑스런 여인을 대하듯 언제나

“라 마르 La Mar” 라고 불렀다. 노인에게 바다는 사랑스런 연인이자 치열한 삶의 공간이고 승리의 무대였다.

「노인과 바다」처럼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주제로 삼은 것을 해양문학이라 한다. 문학 속에서의 바다는 그저 관망하는 대상이 아니라 상상력이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이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의 장이다. 또한 다양한 모험이 펼쳐지는 예측불허의 공간으로서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지만, 조선시대의 해금정책과 공도정책은 우리 민족의 해양관을 크게 위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해양문학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고 한 「문무왕설화」부터 시작해서 「갈치잡이노래」, 「이어도사나」, 용왕굿무가, 용궁부연록 등 고전해양문학에는 바다 속 용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 용은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간들의 숭배 대상이었다. 바다와 교감해 온 역사가 깊은 우리 민족은 용왕과 관련된 설화와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갖가지 소원을 표현하였다.

바다를 이상향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자의에 의한 모험이 소재가 아닌 우연하게 발생된 표류 상황에서 기록한 「표해록」이 많다는 것도 우리나라 해양문학의 특징이다. 여기에서 보이는 바다는 거대하고도 이채로운 공간으로, ‘표류 漂流’ 라는 뜻밖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대자연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는 두려움과 신비함의 장소였다. 하지만 우리문학에 있어 각종 「표해록」은 바다를 극복한 이들의 값진 체험의 소산물이다.



서양의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해양 국가이고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문화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서양문학은 해양문학과 그 출발을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문학에서 나타나는 바다는 극복해야할 두려움의 대상이자 상상의 통로, 인간의 성찰, 풍자의 무대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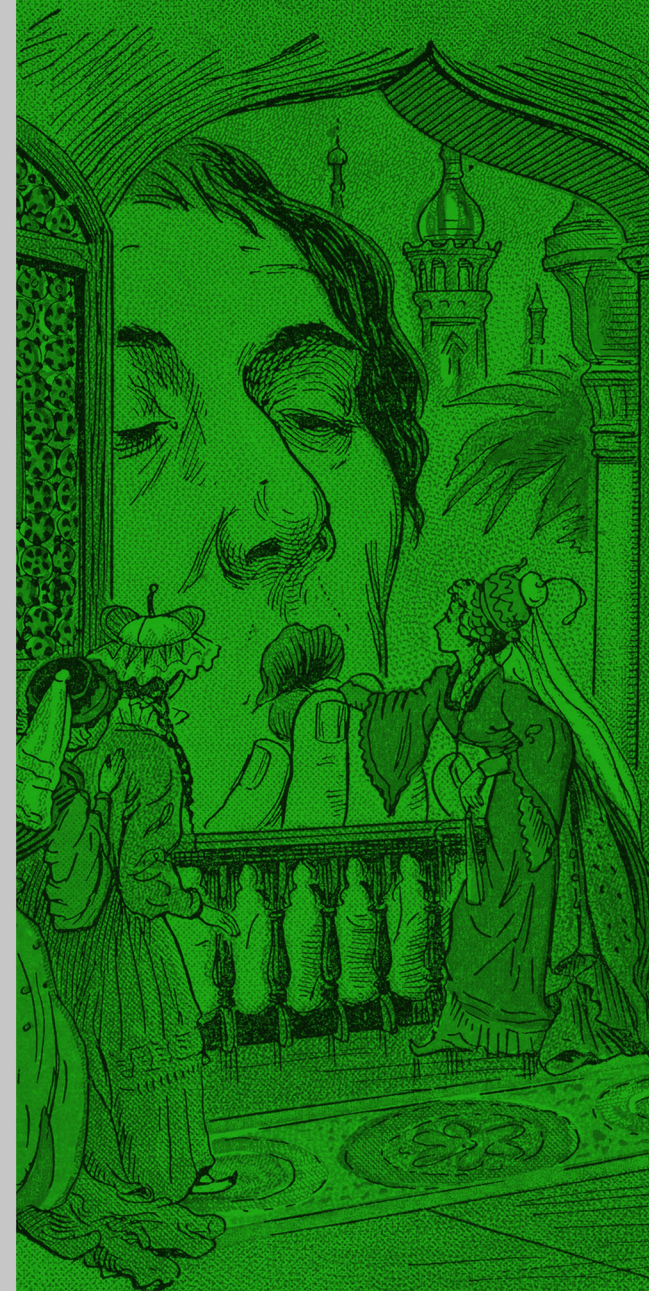
17~18세기 유럽은 항해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목숨을 내건 모험을 시작했는데, 당시의 소설은 모험의 틀 안에서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무인도 표류상황을 통해 불굴의 개척정신을 표현한 「로빈슨크루소」이다.

풍자작가 겸 성직자인 조나단 스위프트는 「로빈슨크루소」의 영향을 받아 걸리버여행기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문학으로 알려졌지만 걸리버의 눈에 비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인간에 대한 통찰, 모험이 녹아든 풍자소설이었다. 소인국 ‘릴리펫’에서는 거인이 된 걸리버의 눈을 통해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고 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거인국 ‘브름딩넉’에서 소인이 된 걸리버를 통해 인간의 추함과 결점을 돋보기로 보듯이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에서는 이성주의를 맹신하여 자신의 주변과 실생활을 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이성을 지닌 말 馬의 나라 ‘휴이념’에서는 ‘야후yahoo’를 통해 동물적인 본성이 강조된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20세기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신흥 해양강국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 배경 속에서 해양문학작품이 다수 등장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비딕」과 「노인과 바다」이다. 「모비딕」은 투쟁의 공간으로서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무한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거대한 향유고래는 인류와 적대적이고, 정복하기 어려운 사악한 힘을 상징하고, 고래가 살고 있는 바다 역시 도처에 위험과 거대한 파괴력을 감추는 공간을 의미한다. 아합선장이 모비 딕에 저항하고 정복하려 하는 것은 바다를 정복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노인과 바다」는 바다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산티아고노인에게 바다는 사랑의 대상이다. 정복의 대상이 아닌 용기를 가지고 싸울 때 반드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즉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무대이다. 거대한 물고기와 상어 떼와의 싸움은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체력의 한계와 고통을 인내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전시는 한국과 서양의 바다에 대한 생각을 문학작품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바다가 상상의 공간, 풍자의 공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공간이 되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 한번쯤 생각해 보기를 희망한다.

이형기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관)



박물관 사람들

저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전시해설과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 화상통화 연결 진행을 맡고 있는 박정희입니다. 2012년 7월9일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좀 더 유익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2년간 많은 추억이 생겼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을 대표하여 전국노래자랑 <부산 영도구> 편에 출연하여 인기상도 받았던 재미있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난생 처음 박물관으로 온 팬레터도 받아보고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방송을 보고 많이 알아보시고 반가워 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뿌듯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뿌듯할 때는 전시해설을 할 때 관람객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해설을 마친 후 잘 들었다며 큰 박수를 보내주시는 때가 가장 뿌듯하고 힘이 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관람객 분들은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이끌어주며 일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 화상통화' 연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직접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호응이 참 좋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저 역시 정말 신기하고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것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관람객들의 질문과 연구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는 함께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보면 매년 연구원 분들은 바뀌지만 질문의 유형은 모두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전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점과 가끔 지난번에 통화했던 연구원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아는 사람처럼 반가워 집니다. 또 당장 남극을 가야겠다고 결심하시는 관람객들도 계시고 여자 관람객 중에서는 멋진 연구원이 나오면 여자 친구가 있는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는지 사심 있는 질문을 하는 관람객도 있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20분간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관람객들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다양한 관람객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으며 유익한 관람을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사원 (전시운영팀)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200년 전 바다를 기록한 자산어보」

4~6월 / 매주 토요일 / 13:00~14: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나오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식탁에서 즐겨먹는 물고기 또는 해초들에 대한 우리 가족만의 어보를 북아트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는 체험프로그램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
「바닷길을 통한 교류와 소통」

5월~6월 / 매주 화요일 14:00~16:00 / 만19세 이상 성인 / 300명 / 대강당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 무료

해양관련 분야를 주제로 해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 전달을 통해 해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강좌프로그램

| 일자 | 주제 | 강사 |
|-----------|---------------------|--------------|
| 5월 13일(화) | 신라시대 정보고의 해상활동 | 고경석(해군사관학교) |
| 5월 20일(화) | 유적답사(경주일대) | - |
| 5월 27일(화) | 해초가 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 정병삼(숙명여자대학교) |
| 6월 3일(화) | 해양 탐험의 역사 | 김성준(목포해양대학교) |
| 6월 10일(화) | 이국적인 맛을 찾아서, 향신료 루트 | 정한진(창원문성대학) |

박물관 소식



그림으로 보는 우리 바닷물고기 2014. 4.12 ~ 5.11

제50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그림으로 본 우리 바닷물고기 전(展)'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2층 해양갤러리존에서 전시됩니다. 도서관주간은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도서관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작을 위해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월 (주)도서출판 보리(대표 윤구병)가 기증한 자료로, 우리나라 연근해 바닷물고기 원화그림 약 70여점을 통해 책속 그림내용을 친근하면서도 정교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 개강 2014.4.15

해양교류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읽어내고, 우리 해양유산과 문화를 보다 친숙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이 개강식을 갖고 첫 강의를 열었습니다. 6월10일까지 진행되는 해양박물관대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시정현장설명회 2014.4.16

부산의 주요 산업현장과 문화, 관광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2014년 시정현장설명회'가 4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견학은 제2,3코스에 배정되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해양의 가치와 비전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1기 대학생기자단 발대식 2014.4.29

해양 관련 주요이슈를 전파하고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핫 트렌드 콘텐츠를 생성할 '제1기 대학생 기자단'이 19일(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0명의 기자단은 앞으로 6개월 간 박물관 행사와 해양관련 소식을 젊은 층의 감성에 맞는 참신한 시각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해양의 가치를 널리 홍보해 대국민 소통활성화와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해내길 기대합니다.

관람 후기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 강의를 듣고

바다.

요 며칠 사이에 무섭게 변해버린 이 울림은 내겐 너무도 익숙하고 편안한 단어다. 해운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바닷가에서 보내온 나는 지금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부산을 떠나 있을 때도 가장 그리워했던 건 분명 바다였을 것이다.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것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었는데, 그리고 보니 바다를 좋아하면서도 그다지 아는 게 없었다. 해양박물관대학을 수강하게 된 건 아주 좋은 기회였다.

"바닷길을 통한 교류와 소통"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제2기 해양박물관대학.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국립해양박물관을 찾았다. 버스에서 내려 눈앞에 벌어진 풍경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웅장한 건물과 넓게 펼쳐진 바다에 아귀자기한 오륙도, 이 풍경만 보려도 올 수 있겠다 싶었다. 강의에 대한 기대도 부쩍 더해졌다. 책자를 받아 대강당에 들어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강의 일정을 들여다보니 다양한 주제들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동양 항해술의 역사'를 주제로 한 첫 강의를 듣고 나니 앞으로의 과정이 더 기대가 되었다. 역사를 통해 해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가를 깨달은 그 다음날, 참사가 일어났다.

일주일 뒤, 두 번째 강의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역사의 바다 황해' 강의는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역사적으로 본 황해는 문명이 결집되었다 분산되는 문명의 요충지였다고 한다. 동해에 비해 수심이 약 40배나 얕고, 소금이 묽다는 이런 자연조건보다 황해가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된 인문학적 환경에 더 흥미가 갔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 분야에서 앞서있었던 중국 대륙과 상대적으로 뒤쳐진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이어주고 있었던 황해. 황해교류는 전근대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인문환경 속에서 나타난 현상 중의 하나였고, 이러한 황해교류를 잘 활용하여 신라는 변용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매력적인 바다 황해는 그 끝자락에 자리한 진도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로 치명적인 바다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바다를 탈탈 수 있을까.

두 번의 강의를 들으며 우리가 먼 옛날부터 얼마나 바다를 흠뻑해왔던가에 대해 느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의 숙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된다.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바다를 저버린다면 그 옛날의 공도(空島)정책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강의의 서두에 교수님이 던지셨던 "Be Korean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반도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남은 강의들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한지(부산시 부산진구)

